

타운뉴스 종교면은 교회, 사찰, 성당 등 종교기관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귀 기관에서 홍보하고 싶은 행사나 기사거리가 있으면 이메일 (info@townnewsusa.com) 또는 전화 (562-404-0027) 로 알려주세요.

종교



### 현실을 바로 보자

## '위브릿지' 컨퍼런스

### 원하트 미니스트리

문화사역단체 원하트 미니스트리(Oneheart Ministry)가 남가주 미자립 교회 지원을 위해 개최하는 '위브릿지' 컨퍼런스가 11월 6일(월)~8일(수) 감사한인교회(담임목사 구봉주, 6937 Orangethorpe Ave., Buena Park, CA 90620)에서 열린다.

이 행사에서는 유경재 목사(나성북교회 담임, 성경 중심 소그룹 목회), 김귀보 목사(달라스 큰나무교회 담임, 말씀에 능력을 불어넣는 내러티브 설교), 유성국 목사(GOSPEL TO ALL 전도 센터, 전도는 기쁨이다), 유수연 사모(ABC 통합 교육구 교육위원장, 공립학교의 현실 & 시대적 사명), 에스라김 목사(생명의 바람교회 담임, 신천지 강의), 살롬 김 박사(비전멘토링 인터내셔널 대표, 예수님의 비전 멘토링을 통한 전도와 양육) 등이 강연한다. \* ( ) 속은 소속과 강연 제목

원하트 미니스트리 측은 "남가주의 작은 교회를 섬기시는 목회자와 사모님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컨퍼런스를 준비했다."면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맞는 귀한 말씀으로 많은 위로와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전했다.

▶ 문의: (213) 739-0403

## 선교사 자녀 장학생 선발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회장 신용)가 제4회 선교사 자녀 장학생 선발을 위한 지원을 받는다. 지원 자격은 고등학교, 대학교 및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해외 한인선교사 자녀이다. 단, 한국과 미국에서 활동하는 기관 선교사 자녀는 제외한다. 모집기간은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다. 지원자는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가 선정한 OC지역교회 추천을 받아서 자기 소개와 부모의 사역소개가 포함된 지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장학금 전달식은 12월 중순에 열릴 예정이다. 지원서 다운로드 등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연합회 홈페이지(www.odkca.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연합회는 지금까지 선교사 자녀 52명에게 총 5만 8,500달러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사람이 태어나 한 생애를 무탈하게 살고 가기란 매우 힘든 일이다. 많은 생육 기간을 지나 정신적인 자아(自我)를 회복하기도 어려운 일이고, 또 그로부터 추출되는 사명을 얻기도 어려운 일이다.

우리가 맞는 모든것은 '현실' 이라는 어휘 속에 묶여진다. 즉 실제하는 모든 것이 현실이라는 말로 표현된다. 그러므로 현실을 바로본다는 것은 투철한 안목의 마련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히 인생의 뿌리를 찾아야하는 불제자로서 현실을 바로본다는 것은 더욱 힘이 드는 일이다. 욕망의 포도가 되어 즐기치게 도전해나가는 사람들이 득실거리는 시대에서 바른 안목을 지니고 현실을 직시한다는 것은 힘이 든다.

자기의 성격이나 소양 또는 힘에 따라 자신에게 맞는 어떤 일을 성실하게 추진해가다가 결국 임종에 드는 것이 인간의 생애이다. 성공과 실패를 떠나 과정에 의의가 있다는 것은 물론 옳은 얘기이다. 그러나 오늘을 사는 모든 사람들은 과정보다는 목표를 향해 어떻게든 그에 달성하기만을 주력한다. 그러다보면 무리를 하게되고 엉뚱한 환란을 자초하기도 한다.

바로 본다는 것은 곧 근본을 보고 지업을 버리라는 뜻이다. 어떤 일을 추진하던 자기가 선 그 자리에서 지업을 보지 말고 근본을 항상 살펴야 한다.

그러나 근본을 항상 살핀다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는 오늘이라는 상황을 바로 알아야 한다. 또 오늘이라는 상황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인간의 뿌리도 살펴야 한다. 큰 뜻도 지녀야하고 그 뜻을 펴기 위해 노력도 해야 한다.



오늘을 풍미하는 현세주의는 영원이나 죽음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거의 눈을 감추고 있다. 물질 기계 과학 등 모두가 현세주의의 산물들로 이룩된 오늘이라는 시대 속에서는 영원이나 미래 또는 죽음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생각하고자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모두 현세주의에 묶여서 살고 있다. 영원이나 미래를 생각할 겨를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부와 물질을 축적한다고 해도 영원한 평화는 획득하지 못한다. 그뿐만 아니라 생명의 끝날에는 축적해 나온 부와 물질은 남겨둔 채 죽음의 품에 들어 영면해야 한다. 인생은 결코 부와 물질의 축적이 전부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인생의 모습, 생명의 뿌리를 직시하시고 제행무상(諸行無常)이라고 말씀하셨다. 끊임없이, 영원히 진행해 나갈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그 어느 것도 없다는 말씀을 주신 것이다. 이 말씀은 곧 우리가 펴는 삶의 바닥을 정확히 찾으라는 간곡한 부촉인 것이다. 모든 움직임이 끊임없이 진행되는 어렵다는 말씀은 결국 생명의 본분과 당처를 정확하게 지적하신

것이다. 이것은 곧 현실을 직시하신 표명이다.

제행무상이라는 진리를 우리는 망각하고서 인생을 설계해서는 안된다. 무상하다는 것을 안다면, 신기루 같은 것을 보고 현혹되어 몸부림을 칠 수가 없을 것이다.

사람마다 사는 모습은 다를 수 있다. 그러나 그 삶의 근원은 결국 자아의 확대와 자아의 발견에 맥락을 두고있다. 자아의 발견을 덮어둔 삶의 전개는 훗날 자기의 끝인 임종 앞에 섰을 때 자연적으로 흐트러진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

흐트러진 없는 모습으로 끝날을 맞는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 자신에게 솔직하고 자기 자신과 늘상 함께 하는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 제행무상을 진실로 본다면 우리의 실천 덕목은 보다 정화된 내용의 것이 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정직한 실천 덕목을 잡아 자기의 인생을 보다 건전하고 튼튼하게 엮어 모든 이웃들에게 빛을 던질 수 있는 입장에 서게 될 것이다. 이러한 빛을 지닌 사람이 우리를 가운데 많이 늘어날 때 우리의 현실은 곧 지상낙원이 될 것이다.

-보성 스님-

# 한남체인 내 코웨이 & 실드라이프

Covid-19 소독제품  
여러종류 마스크 판매

정수기 / 비데 / 공기청정기 / 연수기  
실드라이프 전기매트, 전기장판

정수기 판매 및 렌탈

714.523.9588 / 714.471.1843 5301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1 한남체인 내